

신용카드 남용하는 딸의 가족치료 사례연구

박 태 영*

I. 서론

본 사례는 클라이언트(24세)가 9개월 동안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170만원의 카드 빚으로 인하여 딸과의 갈등을 겪고 있는 엄마로부터 치료자에게 의뢰되었다. 엄마는 클라이언트에게 풍족하지 않은 생활 가운데도 자신은 하고 싶은 것을 모두 억제하면서 클라이언트의 뒷바라지를 해주었다고 생각하였는데, 클라이언트의 과소비 성향으로 카드 빚을 갚아 줘야 할 상황에 대하여 엄청난 배신감과 분노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은 클라이언트에게 끊임없는 잔소리와 폭력을 행사하게 하였다. 그러나 클라이언트에 의하면, 엄마의 이러한 언행은 어려서부터 지속되어 왔고, 엄마에 대한 좋은 감정은 없었다고 하였다. 엄마의 신체적인 학대는 상식을 넘어 어렸을 때 과도를 얼굴에 집어 던지고, 머리를 유리창에 부딪치는 등 엄마에 대한 안 좋은 추억만 가지고 있었다. 또한 클라이언트는 여동생과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고, 아빠와도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 그러한 클라이언트와 엄마와의 관계가 안 좋은 저변에는 아빠가 신혼 초부터 엄마와 관계가 좋지 않았고, 아빠 또한 엄마의 지나친 잔소리와 남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인하여 엄마와 대화를 회피하고 과음을 하는 버릇이 있었다. 그러나 부인은 남편의 과음과 술주정(폭언과 폭행)으로 인하여 더욱 힘들었고, 남편이 신혼 초부터 남편과 아빠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부부가 신혼초부터 의사소통하는데 문제가 있었고, 부인은 시댁식구와의 관계에서 매우 안 좋은 경험으로 인하여 시댁문제와 더불어 남편과 관계가 더욱 악화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부부관계가 악화됨으로써 그러한 스트레스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악순환은 결혼생활 25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

* 숭실대학교 사회사업학과 부교수

났다.

II. 문제점 및 치료목표

치료자는 클라이언트의 과도한 쇼핑성향으로 인하여 신용카드를 남용하는 요인으로 가족 내에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점과 특히 엄마의 강박증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어려서부터 엄마로 인하여 힘든 가정생활을 하였다는 점을 문제로 보았다. 한편, 엄마의 강박증과 지나친 역할은 엄마가 자아분화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데에 가설(working hypothesis)를 두어, 엄마의 자아분화에 초점을 두었다. 한편, 부부간의 의사소통 향상과 자녀간의 자녀하위체계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엄마가 자녀에 대한 지나친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정 밖에서 자신의 시간을 보내고 자신의 새로운 삶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궁극적으로 부부 및 가족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데 치료 목표를 두었다.

1. 문제점

- 첫째, 클라이언트가 자기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고 과소비하는 성향(엄마의 시각)
- 둘째, 엄마가 무섭고, 두려우며, 지나치게 간섭한다.(클라이언트의 시각)
- 셋째, 엄마가 강박증을 가지고 있고, 지나치게 잔소리한다(아빠와 둘째 딸의 시각)
- 넷째, 모녀가 의사소통이 안 된다
- 다섯째, 부부가 의사소통이 안 된다.
- 여섯째, 큰 딸과 여동생과 의사소통이 안 된다.

2. 치료목표

- 첫째, 부모와 큰 딸과의 의사소통 개선
- 둘째, 큰 딸과 여동생과의 의사소통 개선
- 셋째, 부부간의 의사소통 개선
- 넷째, 엄마의 자아분화로 인하여 자신의 삶을 찾기

III. 연구방법 및 분석

1. 연구대상 및 상담기간

치료 기간은 2001년 3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총 15회를 하였고, 개별상담과, 부부상담, 가족상담, 전화상담을 병행하였다. 치료에 참석한 가족은 부모와 클라이언트 및 여동생 모두 4명이었다.

2. 분석방법

본 사례의 분석방법으로는 근거이론의 개방코딩(open coding), 축코딩(axial coding), 그리고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을 활용하여 먼저, 각 치료 세션에서 나타나는 클라이언트의 신용카드 남용에 미친 요인들을 찾고, 클라이언트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게 된 요인들에 대하여 밝혀 보고자 한다.

VI. 상담내용 분석

먼저 상담내용을 통해 개방코딩을 하고 나서 이러한 개방코딩을 중심으로 클라이언트가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된 요인들과 상담을 받으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게 된 요인들에 관하여 축코딩을 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선택코딩을 중심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된 요인들과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게 된 요인들 사이에 관계를 나타내고자 한다.

1. 개방코딩

여기서는 상담축어론 원문에서 연구자가 전반적으로 코딩한 것을 보여준다.

제 1회 상담(클라이언트 & 엄마, 2001년 3월 24일)

| 상담내용 | 코딩 |
|--|--------------------|
| “작년 6월부터 애가 카드로 옷 사고, 돌아다니고, 마사지하고 나이트클럽 다니고 그랬어요.” | 카드사용시작 |
| “좀 이상했지만 그렇게 큰 금액을 쓸 줄 몰랐어요. 악몽인 것 같아요. 사는 게 힘이 하나도 없어요.(울떡이다 울음을 터트림)” | 엄마의 좌절감 |
| “내가 잘못된 게 많아요. 기대가 컸는데 애가 못 미치는 것 같아서 혼내고 때리면서 키웠거든요. 그게 이렇게 부작용이 될 줄 몰랐어요.” | 자녀양육방식에 대한 엄마의 후회 |
| “문제는 애가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인생이 망할 거라는 거예요. 저도 못 살겠어요.” | 자녀의 미래에 대한 엄마의 두려움 |
| “따님의 분수를 모르고 과소비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까?” | 치료자의 문제에 대한 명료화 |
| “애는 당장의 쾌락만 추구하는 삶, 과소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애는 앞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 클라이언트의 문제점 |
| “애가 사회에 잘 적응했으면 좋겠어요.” | 클라이언트에 대한 바람 |
| “저는 집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제가 잘못했으면 한번에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자고 있는데, 새벽에 오셔서 저를 깨워서 소리를 지르세요. 엄마가 화가 나면 잠을 못 주무세요.” | 엄마의 학대와 비난 |
| “엄마는 항상 다른 친구 분들의 자식이란 저희를 비교하셨어요.” | 엄마의 비교하는 양육방식 |
| “어렸을 때 집에 있는 빗자루가 남아나는 게 없을 정도로 많이 맞았어요. 애들이 너희 엄마 계모냐고 이야기 한 적도 있었어요. 엄마는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도 큰소리로 혼내셨어요.” | 엄마의 지나친 폭행 |
| “초등학교 때 애들이랑 잘 놀지 못하고, 엄마가 제가 밖에 나가는 거 되게 싫어하셨거든요. 공부하라고요. TV도 못 보게 하셨어요.” | 엄마의 과도한 역할 |
| “집에 있는 게 너무 싫었어요. 밖에 있으면 친구들이랑 마음은 편했죠.” | 집안에서의 불안함 |
| “엄마 아빠는 어렸을 때 자주 싸우셨고, 지금은 말싸움을 주로 하세요. 심할 때는 욕도 하시구요.” | 부정적인 부부관계 |
| “동생은 몸이 아파서 걱정을 많이 하셨고, 애교가 많아요.” | 동생의 병약함과 살아가는 전략 |

| 상담내용 | 코딩 |
|--|---|
| <p>“엄마는 제가 전문대 다니는 것에 불만이 많았고, 전문대도 학교냐고 하시며 저를 무시했어요.”</p> <p>“저의 귀가 시간이 10시였거든요. 늦게 들어오는 것 때문에 혼났어요.”</p> | <p>무시하는 엄마의 말투</p> <p>엄격한 귀가 시간</p> |
| <p>“엄마는 제가 굶히지 않으면 절대 화를 가라앉히지 않으세요. 그걸 제가 아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저는 잘못했다고 해요. 엄마는 제가 자존심 상하게 너무 몰아 부치세요. 엄마 비유를 맞추고 싶어도 너무 많이 변하시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또 말씀하실 때 너무 극단적으로 이야기 하세요. ‘너는 빌어먹고 살꺼야.’ 저도 엄마의 진심이 아니라는 걸 나는데 (울먹인다)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너무 화가 나요.”</p> <p>“한번은 엄마가 계속 말을 하시는데 그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던 적이 있어요. 또 어느 날은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니까 손이 안 움직이더라고요.”</p> | <p>엄마의 강박증과 저주하는 말투</p> <p>클라이언트의 심리·신체적 증상</p> |
| <p>“대학교 2학년 때 학교 다니기가 싫어서 한 학기를 안 갔는데, 엄마가 ‘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하시면서 저에게 엄청 화를 냈어요. 이 무렵부터 카드를 쓰기 시작했어요.</p> | <p>엄마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로 인한 카드사용 시작</p> |
| <p>“남편이 결단력이 없고 매사에 우유부단한 게 저에게 너무나 스트레스가 되었는데, 애까지 그러니까요. 녀석지도 않는데 미술공부 시키면서 애하나 뒷바라지 했는데 애마저 이렇게 되니까 전 희망이 없어요.”</p> <p>“여기 오면서 내가 잘못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었지만 내 새끼 버리고 도망갈 수 없어서 살았는데... 한번 놀지도 못하고 신경 쓰고 가족에 매여 살았는데...(점점 격하게 흐느끼다 오열함) 언젠가 우리 딸이 좋아지면 내가 하나님만 믿고 살거예요.(거의 부르짖는다)”</p> | <p>희망을 잃음</p> <p>엄마의 과도한 역할과 소진 상태 및 삶의 인식에 대한 변화</p> |
| <p>“지금까지 어머니가 딸을 위한다고 하신 일들이 결국에는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카드빚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마시고 간섭하거나 잔소리 하지 마세요.”</p> | <p>엄마에게 과제부여</p> |

제2회 상담(클라이언트, 3월 30일)

| 상담내용 | 코딩 |
|--|---|
| <p>“엄마가 저에게 잘 해주려고 노력해요.(목소리가 한결 밝아졌다. 엄마한테 불만 있는 거 말해보라고도 하시고, 종이에 뭐가 적어 놓으시고”</p> <p>“최근 이들은 엄마가 잘 이야기하고 그러셔도 펀트가 어긋나서 꼭 싸우게 되더라고요. 한번은 이야기하다가 엄마가 신경질은 내시는 것예요. 엄마가 잔소리하니까 전 또 신경질이 막 났어요.”</p> | <p>변화하는 엄마의 의사소통 방식과 노력</p> <p>변화하려고 노력하지만 반복되는 엄마의 잔소리</p> |

| 상담내용 | 코딩 |
|---|--|
| “제가 너무 신경질이 나고 말은 못하니까 팔이 막 저렸거든요.” | 스트레스로 |
| “이야기하다가 엄마한테 난 초등학교 때까지 엄마가 계모인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호적등본을 떼 보려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충격을 받으셨나 봐요. 엄마가 막 혼낼 때 엄마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 말씀드렸어요.” | 인한 심리· 신체적 증상 클라이언트의 솔직한 의사 표현과 엄마 의 충격 |
| “엄마가 제 카드 빗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깨요. 엄마는 ‘그걸로 뭐할 돈이고, 세계일주는 갔다 왔겠다.’라고 자꾸 말씀하세요.” | 반복되는 엄 마의 잔소리 |
| “어렸을 때는 제가 나가 놀고 싶으면 동생을 꼬셨어요. 그러면 엄마가 허락하셨거든요. 아빠는 동생이 차지했기 때문에...” | 동생에 대한 엄마, 아빠의 편애 |
| “중학교 때는 속으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도 엄마가 무서워서 못했죠. 전 집에 서는 조용해도 밖에서는 되게 활발하고 그랬거든요.” | 클라이언트의 이중적인 생 활모습 |
| “어떻게 하면 본인이 카드를 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 카드를 사용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치료자 의 질문 |
| “자꾸 나돌아 다니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나가게끔 안 했으면 좋 겠어요. 엄마가 자꾸 잔소리하고 스트레스를 주니까 제가 나가는 거잖아요. 집이 편 안하고 화목하면 나가 있어도 일찍 들어오고 싶고 그럴텐데, 혹시 피곤해서 일찍 집 에 들어오면 그냥 자 버리고...” | 카드 사용 을 절제할 수 있 는 방법: 집 안의 평안한 분위기 |
| “엄마가 화가 나면 아침부터 ‘나가’ 그러시면서 소리 지르세요. 전 그럼 스트레스 받 으니까 나가거든요. 그럼 또 아침부터 돌아다니냐고 뭐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엄마 의 메시지는 항상 그런 식이에요.” | 엄마의 이중 속박(구속)의 메시지 |
| “엄마는 막 화를 내시고 ‘할 말 있으면 해 봐’ 그러세요. 그건 ‘잘못했습니다.’ 이 말 을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닌데 원하시는 게 그거니까... 만약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더 혼나는 거죠. 예를 들어 엄마가 일주일에 3만 5천원만 쓰라고 그러셨어요. 그럼 제가 쪼들릴 것 아니에요? 그럼 엄마는 왜 그런 말(용돈이 부족하다는 말)을 못하냐고, 몇몇이 돈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얼마가 더 필요한지 다시 말해보라고 하세요. 엄마가 원하는 대답은 3만 5천원이구 요” | 엄마가 원하 는 대답 |

| 상담내용 | 코딩 |
|---|------------------------|
| “저는 어떻게 하면 엄마한테 안 혼날까라는 생각에 솔직하게 대답을 못해요.” | 클라이언트의 솔직하지 못한 의사소통 방식 |
| “저도 엄마처럼 될까봐 걱정이예요. 저도 안 그러려고 하는데요, 저도 모르게 엄마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지금은 친구들이 조금만 화내도 막 분노가 치밀어요.” | 엄마와 유사한 행동방식 |

제 3회 상담(엄마, 4월 4일)

| 상담내용 | 코딩 |
|--|-------------------------|
| “따님이 지난번에 와서 엄마가 표현하는 데 있어서 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년 빌어먹다 죽을 거야’라는 악담이 없어졌대요.” | 치료자의 엄마의 변화에 대한 지지 |
| “제가 그랬어요. 저는 원래 말을 명령조로 하고 경망스럽게 하는 게 있어서 어려서부터 부모한테 많이 혼났어요. 그런데 사회에 나와서도 교사생활을 하다보니까 그게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남편한테도 절대 안 참아요.” | 엄마의 명령적이고 직선적 말투 |
| “내 말투로 누군가가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게 불과 5-6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철없이 산거죠. 학교 다닐 때도 어떤 애가 잘못했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순가락 던졌다니까요.” | 남을 상처 입히는 말투를 깨달음 |
| “남편이 10년째 당뇨를 앓고, 회사도 그만두면서 예전에는 내가 신경질 내면 덮어주던 사람이 이제는 같이 싸워요.” | 남편의 당뇨병과 부부싸움 |
|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딸아이가 대학교 1학년 때 알았어요. 그 전에는 사람이 못되게 굴면 ‘죽여서라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딸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때마다 강도를 높인거죠. 제가 약간 정신적인 질환이 있었나 봐요. 애한테 매질게 하긴 했어요.” | 엄마의 강박증 |
| “막내가 몸이 너무 약하고 눈을 깜박거린다는가 막 이렇다든가 정서불안이 있었어요.” | 둘째 아이의 심리·신체적 증상 |
| “막내가 30kg 밖에 안 나갔기 때문에 막내딸한테만 신경 쓰고, 늦게 들어오는 남편까지 신경 쓰라, 큰애에게는 늘 잘하라고 하면서 늘 못마땅했죠.” | 집안에서의 스트레스와 큰 딸에 대한 불만족 |
| “제가 시어머니한테 말을 잘못했는데, 시댁식구들이 우리집에 와서 저를 때리고 머리를 끌고, 욕설하고 저를 거의 죽여 놨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 분하고 연락 안하고 지내요. 그걸 애들이 본 거죠. 그 사건 이후에 막내가 정서적인 불안이 온 것 같아요.” | 시댁식구와의 충돌과 둘째 딸의 정서적 불안 |
| “대출 받고 5년 동안 빚 갚느라고 매우 힘들었어요. 애 아빠가 퇴직하고 무슨 일을 시작하였는데 그것 때문에 3천만원 날리고, 제가 불안해서 주식을 했다가 또 날렸어요. 온 식구가 파산이 난 거지요.” | 경제적인 어려움 |

| 상담내용 | 코딩 |
|---|-------------------------------|
| “빛 갠으면서 큰 아이 미술 시키고 과외 시키면서 온 집안의 돈이 개 하나한테 다 들어가는 거예요.” | 클라이언트에 대한 경제적 지원 |
| “남편의 술버릇이 안 좋아요. 난폭하고 욕설하고, 한 때는 폭행도 했어요. 때리면 나도 같이 때리는데 내가 더 맞죠.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왔는데 ‘너 같은 년 나가.’ 그러더라고요.” “큰 딸이 회사를 그만 두고 나서 나이트를 일주일에 한번씩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너 같은 년 필요 없어.’라고 말하고 나서 한동안 쳐다도 안 봤어요.” | 부부간의 불화 비난 하는 엄마의 표현 방식 |
| “제가 큰아이에게 혹독하게 너무 잘못했지만, 그렇지만, 남편 스트레스에 작은 애 스트레스에..... 내가 다 잘할 수는 없었어요. 난 아무튼 남편복도 없고, 자식복도 없어요.” | 과도한 집안에서의 스트 레스 |
| “제가 노력은 해요. 큰아이가 앞으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산다는 보장만 있다면 저는 무슨 일이라도 해서 갠아줄 수 있어요. 제 아이는 괜찮은 아이예요. 문제는 제가 너무 휘둘렀어요.” | 큰 아이에 대 한 신뢰감과 희망이 있음 |
| “저도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죠. 저희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어요.” | 엄마의 불우 했던 어린시 절 |

제 4회 상담(엄마, 4월 14일)

| 상담내용 | 코딩 |
|--|--|
| “에는 지금 좀 착실해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누르니까요. 그런데 내가 너무 힘드네요. 내 평생 이렇게 산적은 처음이에요. 딸이 나에게 ‘엄마 화낼 때 악담하지 말아라, 욕하지 말아라, 짧게 화내라’는 것을 요구해서 그걸 벽에 붙여 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봐요. 화나면 나 혼자 화내요.” | 클라이언트의 변화에 대한 인정과 자신 의 변화로 인 한 엄마의 어 려움 |
| “밥 먹고 나서 내가 나갈 일이 있는데, 딸은 짹 들어가요. 그러면 아빠가 ‘내가 할께.’ 그러면서 해요.” | 남편이 부인 에게 맞춰줌 |
| “내가 자꾸 내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참는 것도 배우려고 하고 있고, 어쨌든 제가 요즘 실어증이 걸렸어요. 며칠 전에 밖에 나갔는데, 정말 말을 안했어요. 이제 말조심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자신의 상처 주는 말투에 대한 조심 |
| “큰 아이가 중, 고등학교 때 새벽 2시까지 잡아놓고 공부하라고 닭달을 했죠.” | 강압적인 엄 마의 방식 |
| “우리 아버지는 무서운 존재고, 엄마는 천사 같은 여자였어요. 아버지는 내가 뭐 잘못하면 우리 엄마보고 ‘이 따위로 키웠다고’ 엄마를 때렸어요. 아버지는 엄마를 괴롭혀서 예순 살에 위암선고 받아서 돌아가셨어요. 별 받으셨나봐요.” | 친정부모님의 부정적인 부 부관계와 아 버지의 폭행 |

| 상담내용 | 코딩 |
|---|---|
| “엄마하고 대화 할 시간이 없었어요. 엄마는 장사하고 맨날 늦게 들어오고, 내가 엄마랑 대화하는 건 맨날 돈 달라는 이야기 밖에 없었어요.” | 모 너 지 간 에 대화부족 |
| “난 집에 들어가는 것이 싫었어요. 엄마가 장사를 하니까 맨날 내가 집안일을 다해야 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집에 오면 동생들 뒤통수까지 긁어먹으니까 돈 벌어서 결혼해야겠다는 생각만 했어요.” | 장 녀 로 서 의 과도한 역할 기능 |
| “내가 좀 골치 아픈 일이 있어도, 남편한테 털어 놓아서 답이 안 나올 것 같으면 나 혼자 골치 아프고 말자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난 남편이 술 먹고 욕설하고 주저하는 거 들어주기 싫었어요. 전 대화하는 거 안 좋아해요. 애들 뒤통수까지 긁어먹고 사는 게 바빠요.” | 부부간의 대 화가 부족하 고 힘든 가정 생활 |
| “저는 불면증이 생겼어요. 그런데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해요. 더 큰 일이 터지기 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 엄마의 긍정 적인 사고로 의 전환과 심 리·신체적 증상 |
| “어머니가 딸과의 관계에서 조금 편해지시려면, 집안일에만 에너지를 쏟지 마시고 동창도 만나시고, 돈도 자신을 위해서 쓰고, 운동도 하시면서 자신의 시간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또한 남편과도 대화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자신의 삶을 찾으라는 치 료자의 메시 지 전달과 부 부대화에 대 한 필요성 강 조 |

제 5회 상담(아빠, 5월 2일)

| 상담내용 | 코딩 |
|--|------------------------------------|
| “제 딸아이는 심성이 착해요. 애가 손재주도 있고, 재능도 있어요.” | 클라이언트의 심성에 대한 인정 |
| “애 엄마가 욕심이 좀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녀상이란 게 있잖아요. 거기에 틀을 맞추어 애를 키워가려는 좀 강압적인 게 있죠. 그런데 애는 잘 따라주지 못해서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구박을 많이 받았어요. 엄마로 인하여 큰애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은 거죠.” | 부인의 강박 적인 양육방 식 |
| “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렇게 많이 썼다는 것을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 정도의 금액을 끌어냈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그런 것 같은데 앞뒤 재지 못하는 게 문제죠.” | 딸의 스트레 스에 대한 인 정과 딸의 문 제점 |
| “엄마라고 해봐야 우선 구박만 하고 애가 말을 하려다가도 못하고, 저도 늘 늦게 다니니까 시간이 없었고, 혼자서 감내하기가 어려웠던 문제가 좀 많았죠.” | 클라이언트의 대화상대 부 족 |

| 상담내용 | 코딩 |
|---|-----------------------|
| “엄마가 두 아이를 차별대우 했어요. 동생은 몸이 약해서 야단을 안 쳤고, 큰 아이는 야단치는 강도가 달랐죠.” | 엄마의 차별적인 자녀 양육방식 |
| “그런데, 여기서 상담하고 나서 애 엄마도 많이 느낀 모양이에요. 대화도 해보려고 하는 것 같고...” | 엄마의 변화에 대한 인정 |
| “문제는 대화를 시작하다가도 뭔가 좀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 예를 들면 카드빚을 갚아주는 이야기라던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다시 신경질이 돋는거죠. 애가 쉽사리 대화에 접근하기 어려움 상황이에요.” | 반복되는 부정적인 의사소통 방식 |
| “큰애가 고등학교 때도 야단치다가 빨리 시집이나 가버리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애 엄마의 성격이 괴팍스러워요.” | 엄마의 부정적인 의사소통 방식 |
| “내가 제 처에게 그러지 말라고 하면, 나보고 애 야단도 안치고, 패지도 안고 뭐하나고 그러는 거죠.” | 거들어 주지 않는 남편에 대한 비난 |
| “애가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 되는 나이에 온몸이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뺨으니까, 아주 소름끼칠 정도예요.” | 딸에 대한 엄마의 신체적 학대 |
| “내가 술 먹고 늦게 들어가는 날이면, 화풀이를 애한테 하는 거예요.” | 딸이 엄마의 분풀이 대상 |
| “내가 몇 마디 하면 나한테 막 퍼붓고, 어제는 가족회의를 하자고 해서 잘 하다가 결과적으로 마지막엔 나랑 싸움이 났어요.” | 부부간의 대화방법에 문제 |
| “제가 점점 봉급이 줄어들니까 자기 친구들 남편이랑 비교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벌어서 애를 자기 틀 속에서 가르치는데 잘 안 따라주니까 서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나는 또 돈 못 벌어오니까 나랑도 스트레스를 받고, 아주 얽히고 설킨 거예요.” | 비교하는 엄마의 방식과 경제적인 어려움 |
| “제가 당뇨가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밖에서 받는 스트레스보다 더해요. 그것도 꼭 출근하는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준다고요. 병에도 안 좋죠. 제가 나가 있으면 편해요. 제가 자청해서 지방으로 내려가서 근무했어요. 그게 편하니까. 사람들은 대개 1-2주에 한번씩 집에 올라오는데, 저는 올라오기가 싫어요. 올라오면 스트레스 받으니까요. 어떤 때는 내가 6주까지 집에 안 올라왔어요. 회사 다닐 때 내가 술을 많이 먹은 이유가 집에 와서 대화 안 하기 위해서예요.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어느 정도 돈만 생기면 스트레스 막 풀어져요”, “우리가 일주일에 보통 3-4일 정도는 싸워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삼니까? 특히 친구 집에만 갔다 오면 누구 집은 돈을 얼마 벌었고, 애들은 어떻게 하면서 스트레스를 줘요.” | 부인으로 인한 남편의 스트레스 |
| “이 사람은 기분이 좋으면 간도 빼줄 정도로 애들한테 잘해요. 그러다가 자기 성에 안차면 그냥 또 난리가 나요.” | 불안정한 엄마의 성격 |
| “저는 잔소리 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집사람하고는 스타일이 완전히 틀려요.” | 정반대의 부부성격 |

| 상담내용 | 코딩 |
|---|------------------------|
| “신혼 초부터 대화가 안 된 건 아니요. 이미 연예를 5년 동안 했으니까요. 집안과 싸움이 일어나면서 점점 멀어지게 됐어요.” | 시대식구와의 사건으로 부부관계가 악화됨 |
| “제가 잘못된 건 술 먹고 늦게 들어갔다는 거죠. 집사람 고생한 건 맞아요.” | 부인의 고생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 |
| “엄마가 큰딸에게 접근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깊은 대화는 못하는 것 같아요. 집사람이 여기 와서 상담 받고 나서 저에게 대화를 하자고 해요” | 엄마가 아파와 딸과 대화를 하려고 시도함 |
| “저도 집사람에게 늘 나가라고 부추겨요. 뭐 스포츠 댄스니 뭐니 할 거 많잖아요.” | 남편이 부인의 시간을 갖도록 권장함 |

제 6회 상담(부부, 5월 12일)

| 상담내용 | 코딩 |
|---|-------------------------------|
| “내가 옛날보다는 많이 참죠.” | 클라이언트에 대한 엄마의 인내 |
| “하루에도 가만히 있다가 그냥 도망가고 싶은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예요. 아주 참을 수가 없네요. 너무 비상식적이에요.” | 잊혀지지 못하는 딸에 대한 분노 |
| “일단 딸아이가 집에 들어오는 시간에서 조금 노력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시간개념이 없었어요. 1시간 2시간 그런데 요즘에는 그래도 12시 안에는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일단 애는 집에 들어오면 자기 방에 쳐 박혀서 나오려고 하지를 않으니까요. 형식적인 대화만 하고 잔잔한 대화는 없죠.” | 딸의 귀가 시간 변화와 형식적인 대화 |
| “난 원래 수다쟁이였는데, 어느 순간 듣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사는 게 자신이 없으니까, 내가 어디 가서 자식자랑을 하겠어요? 남편 자랑을 하겠어요? 난 낄 수가 없으니까 입을 다문거죠. 내 말을 들어 준 사람도 없어요. 딸과 남편 모두 내말 안 들었어요. 실망, 허탄 뭐 그냥 목숨이 붙어있으니까 사는 거지” | 엄마의 삶에 대한 비애감 |
| “교수님 만나서 좋은 점도 있어요. ‘내가 애를 너무 학대해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생각하고 조심도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갑자기 돌아가서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루아침에 변한다는 것도 사실 힘든거잖아요.”, “교수님 처음 만나고 나서부터 애 데리고 매주 교회에 나가고 있어요. 아직 말씀이 들어오진 않아요. 그냥 안 가는 것보다야 낫지 싶어요.” | 상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변화하는데 시간이 필요함 |

| 상담내용 | 코딩 |
|--|--|
| “지금도 엄마가 애를 패요. 때리면 맞는다니까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왜 때리냐고 막 덤비더라고요. 둘째도 지금 때리잖아.” | 엄마의 계속되는 폭행 |
| “난 인격장애야. 근데 장애가 됐진 안됐진 내가 우리 딸에게 잘못된 건 많지만, 그래도 이게 ‘나쁜 일이다,’ 싶은 건 안 해요.” | 딸에 대한 양가감정 |
| “어머니께서는 딸에게 잘해주려고 했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 방법이 오히려 문제를 꼬이게 하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 엄마의 노력에 대한 재명명 |
| “어머니께서 자기시간을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너지를 얻을 곳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애들한테 너무 집착을 해서 그래요.” | 자아분화를 위한 엄마의 시간 갖기에 대한 치료자의 권유와 남편의 동의 |
| “ (엄마가) 애들한테 잔소리하고 심하게 대할 때, 내가 그만하라고 하면 오히려 더 잔소리를 해요. 그럼 참다 참다 내가 더 성질이 나요. 거기다 대고 소리 한번 질러 버리면 또 싸우게 되는 거죠. 그것도 저녁에 뭐라고 잔소리하고 끝내야 하는데, 아침에 출근하는데 또 그래요. 그럼 아주 피곤하게 만들어요. 회사 가서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술을 아주 일부러 더 먹게 돼요.” | 부부간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 |
| “ 애 아빠한테 스트레스 받으면 새끼들한테 막 지랄하고, (언성이 높아지며) 어떻게 간섭을 안 해? 최소한 어디에 있으며 언제 들어오겠다는 정도는 이야기를 해줘야지. 나 위해서 하는 잔소리예요. 당뇨 때문에 몸도 안 좋은 사람이, 나중에 더 안 좋아지면 내가 다 책임져야 할 텐데.... 그럼 난 (잔소리를) 더하지. 그럼 나만 양보하라고? 내 새끼도 나한테 그랬어.” | 엄마의 과도한 부담으로 인한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 |
| “ (부인에게) 애들을 자기 틀 속에 집어넣으려다가 이 꼴이 된 거예요. (남편에게 항변하며) 어떻게 그런 식으로 얘기해? 다 내 책임이라면 남편은 뭘 하고 있었어? 예를 들어, 내가 애들을 야단치고 있으면 와서 무슨 일인지 묻고 혼낼 일이면 혼내고 그래야 하는데 더 초치면! 술직히 그래, 딸리는 시누가 밍듯이, 내가 야단칠 때 와서 더 화가 나게 한다고, 차라리 나를 제쳐두고 당신이 해결을 하던지 그렇지 못하고 언제나 많은 시간을 술 취한 상태이니까. 이 아빠는 술을 먹으면 자기 컨트롤을 못해요. 심지어 ‘너가 처녀 때 진짜 처녀였냐?’라는 식의 폭언도 하는 사람이예요. 애들 앞에서 싸울 때 그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더 심한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술 먹고 얘기하는 게 너무나 싫어요. 너무나 스트레스 받아. 욕에 폭언에 ‘쫓 같은 년’ 이런 말도 막하고!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가뜩이나 내가 힘들어서 초라해 죽겠는데. 그래서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려워요.” | 부부간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해 왔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 |
| “저는 집에서 혼자 술 잘 먹어요. 화나면 혼자 술 먹고 자는 게 스트레스 푸는 방법 중 하나예요. 아무 말도 하기 싫으니까 술 먹고 그냥 자버려요.” |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엄마의 음주 |

제 7회 상담(부부, 5월 19일)

| 상담내용 | 코딩 |
|---|---|
| <p>“우리는 대화 잘 안 해요. 내 스타일이 그래요. (남편을 향해) 그렇지 않아? (부인에게) 별로 얘기 많이 안 하니까.... (남편에게) 화나서 싸울 때나 말이 많지.(처음으로 부부가 웃는다)”</p> | <p>부부간에 대화가 부족함</p> |
| <p>“애들이 어렸을 때는 여행을 잘 다녀왔어요. 그런데 가면 많이 싸웠어요. 예를 들어 어디를 간다고 하면 나 같으면 어떻게 가는 건지 알아보고 되도록이면 실수하지 않고 한번에 가려는 스타일인데, 애 아빠는 그냥 무조건 나가서 찾는 거예요. (부부에게 치료자가) 저랑 비슷하시네요.(모두 웃음)”</p> | <p>여행 다니는 방법에서 부부의 차이점</p> |
| <p>“난 워낙 친한 친구들과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진짜로 외롭지. 이 동네 이사 와서 지겹게 외로웠어. 어제도 그랬지. 집에 있으면서 밤이고 낮이고 심심해 죽겠어. 다들 늦게 들어오니까.”</p> | <p>엄마의 외로움-자신의 삶을 찾기 위한 기회</p> |
| <p>“남편은 거절을 못해요. 한 번 술을 먹으면 끝장을 봐요. 그게 아주 병이에요. 일주일 동안 맨날 먹을 때도 있었죠. 애 아빠는 술 먹고 욕을 그렇게 잘해요. 난 원래 남 욕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불안해요. 예전엔 그래도 희망을 갖고 살았는데 난 요즘 잠을 못 자요. 어제도 그랬고 계속 그래요.”</p> | <p>아빠의 잦은 음주와 엄마의 불안과 불면증</p> |
| <p>“아버지라면 최소한 애들 시험이 언제인지는 알아야죠. 애들 시험 때도 모르고 집에 사람들 데리고 와서 술 먹고 그런 스타일이예요.”</p> | <p>가정을 등한시한 남편</p> |
| <p>“이 사람은 유별나게 간섭을 해요. 예를 들어 어제 같은 경우도 그래요. 막내 놈이 대천을 가는데 왜 청량리로 가느냐... 또 이미 간 애를 새벽 4시에 핸드폰을 치는 거예요. 그것도 아침까지 계속 전화를 하더라고요. 한번은 큰애가 집에 안 들어와서 핸드폰을 밤새도록 치는데 한 50번은 했을 거야.”</p> | <p>엄마의 미분화와 지나친 간섭</p> |
| <p>“애가 불안하면 내가 불안하니까. 지금은 그래도 덜 그래요. 이젠 애들하고 떨어지려고 해요. 이제는 늦게 들어오는 것만 간섭하지 다른 건 없어요.”</p> | <p>분화 하려는 엄마의 노력</p> |
| <p>“(남편에게) 이 사람은 내가 필요할 때 언제나 없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많이 아파서 좀 일찍 들어오라 해도 회사일 바쁘면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애들한테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살았는지 말을 할 필요가 없어. 큰아이가 언제나 저에게 하는 말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맨날 싸우고, 욕하고, 나 때리고....’ 여기 와서 알게 된 건 내 삶, 가족관계가 정말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전 안정이라기보다는 더 혼란하고 불안스러워요.”</p> | <p>남편의 미흡한 역할로 인한 원망과 엄마의 과도한 역할 기능, 잘못된 가족</p> |
| | <p>관계의 인식으로 인한 혼란스러움</p> |

제 8회 상담(클라이언트와 아빠, 5월 28일)

| 상담내용 | 코딩 |
|---|------------------------------------|
| “엄마가 많이 변하셨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덜 이기시려하고, 말도 좀 더 잘 해주시고..” | 엄마 태도의 변화 |
| 치료자가 엄마에게 ‘오늘은 얼굴이 밝으시네요? 처음 여기에 오셨을 땐 안 그랬어요.’ 라고 말하자. “(웃으며) 제가 느낀 점은 울상 짓고 산다고 누가 나 웃게 해주나요?” “교수님 말씀대로 애들이 스스로 해나가도록 간섭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즘 돌아다니느라고 바빠요. 아무튼 생각을 바꿨어요. 가면서 음악 들으면서 기분 좋고... 밖에 나가면 애들 생각을 덜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집에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앞으로 뭐 먹고사나 하는 등의 걱정이죠. 하루는 오이지를 담가야 하는데 놀자고 부르길래 다른 때 같으면 안 나가는데 오이지 물만 붓고 그냥 달려 나갔어요. 그래서 실컷 떠들고 놀다가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신경 쓰고 살았는데 언제까지 그러고 살아요. 이제는 ‘지금 놀아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 엄마의 미소와 인식의 변화 |
| “잠이 안 와요. 평생을 남편하고 애들 기다리면서 살아서, 잠을 못자면 막 혈압이 올라요. 내가 원래 소주를 못 먹었는데, 술이 늘었어요. 제가 아침에 나갔다 늦게 들어오는데, 애들에게는 그냥 ‘일찍 들어와라.’ 라는 이야기만 하죠.” | 엄마의 자아분화에 대한 시도 및 행동의 변화 |
| “직장에서 일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데, 저는 요즈음 카드는 일체 안 써요.” | 엄마의 주량 증가와 적어진 잔소리 |
| “애는 봄, 가을로 한약을 먹어야 돼요. 이번 가을에 또 먹어야 돼. 애가 작년에 카드 쓰고 그러면서 얼굴이 상했어요. 아무리 고민이 있다 해도 얼굴이 23살 얼굴이 아니더라고요.” | 카드를 사용하지 않음 |
| “엄마는 한 번 늦은 걸 가지고 계속 늦는다고 생각하신 거예요.(웃음) (엄마에게) 요즘엔 계속 6, 7시에 들어왔어.”, “이젠 애가 알아서 해야죠. 저도 앞으로 나를 위해서 살 거예요. 이젠 희생하지 않을 거예요.” | 딸에 대한 안쓰러움과 엄마의 사랑 |
| “제가 둘째한테는 뉘이 너무 약해서 ‘넌 공부 못해도 괜찮으니 건강하게만 자라라.’ 하면서 첫째에게는 기대치를 너무 높인 거죠. 이것이 큰애 입장에서는 엄마가 차별한다고 느꼈을 수도 있을 시예요. 전혀 아닌데, 내가 극과 극을 달렸지요.” | 딸의 변화된 귀가시간과 자아분화에 대한 노력과 자신의 삶 찾기 |
|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동생이랑 친하지를 못했죠. 나는 맨날 혼나는데 동생은 맨날 이쁨을 받으니까요. 옛날에 동생이 내 방에 들어오면 ‘나가!’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동생한테 왜 그렇게 나쁘게 굴었을까?’ 싶더라고요. 그런 마음은 항상 있는데, 워낙 안 그래서 지금도 동생한테 잘 못해 줘요. 그리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제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하고 인사를 하면 인사를 안 받아주세요. 그런데 동생이 학교 갈 때는 문 앞 까지 배웅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 차별적인 양육 방식에 대한 엄마의 해명 |
| “그런데 나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거든요. 그랬어? 사실 제가 더 신경 쓴 건 애였거든요. 오히려 신경을 너무 많이 쓴 거죠. 내가 애한테 쏟은 돈이라든가 정성을 작은애한테 하나도 못 줬어요.” | 동생과 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설명 (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 |
| | 클라이언트에게 더 신경 쓴 엄마 |

| 상담내용 | 코딩 |
|--|--|
| <p>“지금은 엄마의 입장을 알았어요. 이제 엄마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클라이언트와 엄마 사이에서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수용해 주는 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p> | <p>클라이언트가 엄마에 대한 오해가 풀림</p> |
| <p>“제가 동생한테 진짜 제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했거든요. 개도 아마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예요. 동생도 가끔 ‘다른 언니들은....’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럼 되게 미안해요.”</p> | <p>동생에 대한 미안한 감정</p> |
| <p>“내가 많이 잘못된 것예요. 그건 내가 살아온 환경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부모가 내 동생하고 내가 싸우면 둘 다 야단을 쳤어요. 그런데 그건 동생을 야단쳐야 하는 건데. 내 교육방식이 잘못됐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죠. 사실은 제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여기서 치료자는 클라이언트에게 엄마의 힘들었던 생활과 과도한 역할에 대하여 재명명을 하였다.)</p> | <p>클라이언트에 게 엄마의 교육방식에 대한 사과</p> |
| <p>“엄마가 억울하실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잘했더라면 엄마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엄마가 좀 측은하고.... 정말 엄마는 저한테 모든 걸 다 투자하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시겠어요. 좀 잘하는 딸이었으면 좋았을 텐데....(운다).” - 클라이언트는 처음으로 이러한 표현을 엄마한테 한다고 하였다. - 여기서 획기적인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즉, 모녀간에 지금까지 시도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기능적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이러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인하여 두 사람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감정의 변화를 볼 수 있다.</p> | <p>엄마의 입장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공감과 측은지심(솔직한 의사소통 방식)</p> |
| <p>“제가 동생 만나면 고맙다고 할 거예요. 개가 교수님 가르쳐줘서 교수님한테 상담 받게 됐으니까요. 참, 그리고 요즘 애 아빠가 교회 나가요.”</p> | <p>상담에 감사하는 엄마와 아빠의 변화</p> |
| <p>“엄마가 요즘 동생한테 ‘너는 언니처럼 되지 마라.’ 라고 그러세요.”, “안 그렇게. 요즘 무슨 일이 있어도 둘이 해결하라고 해요. 그래도 가끔 간섭할 일이 있어요.”, “둘이 해결하라고 해 놓고, 엄마가 또 달려와요.(웃음)” 기능적인 대화방식으로 모녀가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p> | <p>클라이언트의 불만과 엄마의 사과</p> |

제 9회 상담(엄마, 6월 9일)

| 상담내용 | 코딩 |
|---|-------------------------|
| <p>“남편이 여기 다녀가고 나서 나에 대해서 조금 참는 것 같아요. 남편이 달라진 것은 술 먹고 들어와서 암전하게 자요. 남편은 다른 건 다 좋은데 너무 절제가 없어요.”</p> | <p>남편의 술버릇 변화와 인내심</p> |
| <p>“내가 진작 여기 와서 이런 상담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p> | <p>상담의 효과</p> |
| <p>“딸이 일하는 회사 사장님이 ‘애가 일을 참 신경 써서 잘하고, 요즘 보기 드물게 해가 착실하다.’고 하면서 애를 정식 채용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애가 거기서 열심히 했나 봐요. 난 맨날 11시에 들어 오길래 노는 줄만 알았는데...(웃음)”</p> | <p>클라이언트에 대한 인식의 변화</p> |

| 상담내용 | 코딩 |
|--|-------------------------|
| “내가 여기 와서 애들하고 좀 떨어져야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해서 내 감정을 다 풀었거든요. 그런데 좀 그런 걸 눌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 자아분화의 필요성과 감정조절의 필요성 인식 |

제 10회 상담(클라이언트 & 엄마, 6월 20일)

| 상담내용 | 코딩 |
|--|--------------------------------|
| “엄마가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지셨어요. 잔소리 오래하시던 것을 좀 짧게 하세요. 지금 애 엄마가 많이 누그러졌어요. 교수님 말씀 듣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엄마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 엄마의 잔소리 줄고 변화하려는 노력 |
| “(딸에게) 엄마 지금 속으로 네가 또 일을 저지를까봐 조마조마 하고 있어. (딸이 아빠에게)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아빠가 딸에게) 그걸 엄마한테 주지시켜 줘.(다 같이 웃음)” | 딸의 재발에 대한 엄마의 두려움 |
| “(아빠와 함께 웃으며) 아빠는 항상 마음을 열어놓으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좀 다가가기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대화가 없다보니까....” | 접근하기 어려웠던 아빠와 딸 관계 |
| “아빠는 굉장히 자상하셨어요. 그러다가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좀 성격이 예민해지시면서 엄마랑 좀 비슷해지신 것 같아요.” | 자상한 아빠와 성격이 예민해짐 |
| “딸아이가 다녔던 회사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우리 딸아이를 다시 취직시켜 준다고 하면서 딸아이가 아주 잘한다고 했대요. 그리고 회사가 이사를 가는데 거기서는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애 엄마가 아주 좋아해요.” | 딸의 취직과 엄마와 공간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 |
| “동생은 어렸을 때 몸이 약해서 막 넘어가고 말도 더듬고 그랬어요. 그래서 동생은 덜 맞았고 상대적으로 곱게 자랐죠. 그러다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부터 반항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때리면 맞아요. 애 기를 꺾어놔야 직성이 풀린다니까요. (딸이 아빠에게) 아빠가 지방에 내려가 계실 때는 더 심했어요. 아빠가 모르는 부분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엄마가 확 들었을 때는 식칼을 가지고.... (아빠가) 진짜 정신병자 같아요. 세상에 주어다 키운 애도 그렇게 안 때릴 거예요. 암튼 애는 무지하게 맞고 자랐어요. 지금도 맘에 안 들면 때려요. 아주 피곤해요.” | 엄마의 강박적인 성격과 딸에 대한 지나친 신체적인 학대 |
| “술을 먹고 들어왔어도 다음날 아침에 해장국 한 번 끓여 준 적이 없어요. 해장국은 커녕 밥도 없어요. 그리고 다리미질 한 번 안해요. 자기 옷도 나한테 다려달라고 하는데요, 뭐.” | 부인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 |

| 상담내용 | 코딩 |
|---|---|
| <p>“그래도 요즘은 애 엄마가 많이 달라졌어요. 아침에 교회도 같이 가고, 한 번은 제가 별일이 없기에 저도 갔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어제는 셋이서 교회 같이 갔다 왔어요. 내가 갑자기 교회 간다고 하니깐 뜻밖이었나 봐요.”</p> <p>“오늘 애가 oo로 가게 되었다고 하니깐 애 엄마의 입이 아주 찢어졌어요(웃음) 교회 다녀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준 모양이래요. (딸에게) 오늘은 집에 가면 (엄마가) 아 마 기분이 짜질거다. 사장님이 이 애를 두 달 데리고 있어보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이 기집애(딸에게) 똑똑하다고 난리예요.(웃음) 애 엄마가 좋을 땐 ‘알았어, 알았어. 안 그럴게.’ 그래요.”</p> <p>“요즘 저와 애 엄마와의 관계도 많이 나아졌어요. 애 엄마가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교수님과 상담하고 나서 무슨 극단적인 예를 들면서 ‘그래도 나는 그것에 비하면 양호한거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요.”</p> <p>“상담 받고 나서 엄마랑 한번 싸웠는데 그 때도 제 손이 안 움직였어요.”</p> <p>“애 엄마가 애들한테 한 시간씩 야단치면 내가 ‘그만해라’ 그런다고요. 그럼 더해요. 안 그래도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애 엄마가 울고 난리를 쳤어요.”</p> <p>치료자는 여기서 아빠가 엄마와 딸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던 방식이 모녀간의 관계를 개선하기 보다는 부부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모녀관계 까지 더 악영향을 미치는 방식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다음번에 유사한 상황에서 오히려 부인의 편을 들어서 애들을 야단치라고 하였다. 그러나, 아이들에게는 미리 양해를 구하도록 하였다. 즉, 지금까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했던 방식에서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을 시도하도록 조언하였다.</p> | <p>클라이언트와 부모가 함께 교회를 다님</p> <p>클라이언트의 취직으로 인한 엄마의 모처럼 만의 기쁨</p> <p>부부 관계의 향상과 상담으로 엄마가 위로 받음</p> <p>클라이언트의 심리·신체적 증상</p> <p>아빠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p> |

제 11회 상담(클라이언트 & 여동생, 6월 30일)

| 상담내용 | 코딩 |
|---|---|
| <p>“언니가 늦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는 못하고, 그냥 ‘왔어?’하고 묻는 정도예요. 저도 즐리고 그러니까....”</p> <p>“엄마하고는 하루에 한 번씩 안 싸우면 못 넘어가요. 엄마가 작은 일에도 화를 되게 잘 내세요. 좀 문제가 많아요.(웃음) 그냥 넘어 갈 수 있는 문제도 꼭 언니나 저한테 스트레스를 풀어요. 한 번도 그냥 안 넘어 가세요. 정말 혈압 올라가요. 한 번 싸우면 머리가 진짜 아파요. 엄마가 언니한테 하는 건 좀 나아졌는지 몰라도 나한테는 똑같아요. 언니한테는 화를 안내죠.”</p> <p>“언니와 대화가 되긴 되죠. 제가 굉장히 열 받는 일이 있다고 하면 언니는 다 이해를 하죠. 다 겠어봤으니까. 근데 엄마하고는 안 통해요.”</p> | <p>소원한 언니와의 관계</p> <p>문제 있는 엄마와 언니한테 달라진 엄마</p> <p>엄마와 의사소통이 안 되는 여동생</p> |

| 상담내용 | 코딩 |
|---|----------------------------|
| <p>“엄마가 언니한테 신경을 많이 쓴 건 신경 쓴 게 아니라 집착이죠. 오히려 사람을 괴롭힌 거예요. 진짜 어떨 땐 엄마를 죽이고 싶더라니까요. 정말 도가 지나쳐요. 사람을 때리고 욕하고 그러면 다 말을 듣는 줄 알아요. 그건 아니에요. 진짜, 엄마는 대학을 나왔다는 사람이 이성적이지 못하고 비지성인이에요. 왜 그러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치료자가 언니는 엄마한테 많이 맞고 자랐는데, 동생은 사랑을 받지 않았다는 질문을 했다.)</p> | <p>엄마의 집착과 난폭성</p> |
| <p>“그렇지도 않아요. 때리는 것도 똑같이 때려요. 새벽에 깨워서 들들 볶아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집에 있기 싫다니깐요. 사람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신과 의사는 아니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엄마는 무슨 얘기하다가도 꼭 옛날이야기를 꺼내서 잔소리를 하니까 더 스트레스 받아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p> | <p>여동생에 대한 엄마의 학대와 잔소리</p> |
| <p>“때리는 것도 때리는 건데요, 사람을 물귀신처럼 붙잡고 늘어져요. 새벽 내내.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엄마는 정신병원을 탈출한 거야!’라고 그랬어요. 우리 엄마는 화가 나면 물불 안 가려요. 10개 이상 틀리면 엄청 혼났었거든요. 한번은 13개 틀렸는데 10개 틀렸다고 거짓말을 해서 발가벗겨져서 쫓겨났어요. 엄마에 대한 좋은 기억은 전혀 없어요.”</p> | <p>정신병자 같은 엄마</p> |

제 12회 상담(클라이언트, 아빠 & 여동생, 8월 25일)

| 상담내용 | 코딩 |
|--|----------------------------------|
| <p>“요즈음에 저는 카드 안 써요.”</p> | <p>카드를 안씀</p> |
| <p>“지금 엄마와 큰 애의 관계는 많이 좋아졌어요. 예를 들어, 돈에 관한 일이 생기면, 또 혼자서 속을 썩곤 하는데 옛날처럼 바로바로 화내고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p> | <p>클라이언트와 엄마의 변화된 관계가 지속됨</p> |
| <p>(아빠가 클라이언트에게) ‘넌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묻자, “전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p> | <p>엄마 변화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인정</p> |
| <p>“엄마랑 나랑 둘이 있으면 나한테 신경질 내요.”</p> | <p>엄마의 신경질이 클라이언트로부터 동생에게 전이</p> |
| <p>“애 엄마하고 나와의 관계도 많이 괜찮아졌어요. 요즘 애들 과외를 좀 덜하고,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 시간을 많이 갖는데, 내가 전혀 터치할 안 하거든요. 지난 번에 둘째 애 때문에 불안하다고 하면서 친구 과수원에 못 가다가 결국에는 놀러 갔어요. 거기서 사람들한테 다 큰애를 뭐 하러 걱정하느냐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 엄마가 아무소리도 못 하더라고요. 전화도 한 번 딱 했지.”</p> | <p>엄마의 분화와 간섭이 줄어들어 짐</p> |

| 상담내용 | 코딩 |
|---|---|
| <p>“예전에는 아침 꼬박꼬박 챙겨주시고 그랬는데(불멘소리로 말한다), 요즘엔 엄마랑 아침에 둘이 있으면 밥도 안 차려주고, ‘니가 알아서 먹어라.’ 그러세요. 항상 옆에 있고 챙겨주던 엄마가 맨날 집에 없으니까 적응이 안 되죠. (불만 섞인 투로) 그래도 그렇죠. 맨날 밤늦게 들어오고,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고 새벽에 갑자기 전화 받고 나가질 않나... 사람이 이상해 졌어요. 보통 전화세 많이 나오면 엄마가 막 신경질 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전화세와 핸드폰 비가 많이 나왔는데도 그냥 조용하게 ‘왜 이렇게 많이 썼니?’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진짜 사람이 이상해 졌다니깐요. 아침에 방 청소를 안 해도 아무 말도 안하고, 저한테 뿐만 아니라 전체 식구들한테 그래요. 집안일에 대해서 손을 떼셨어요. 밥도 안하고 아빠가 다 해요. 맨날 피곤하대요. 놀고 와서 뭐가 피곤해...”</p> | <p>엄마의 갑작스런 변화에 적응 못하는 동생</p> |
| <p>“내가 집에 있으니까 엄마가 돌아다니지...(웃음) 내가 볼 땐 애 엄마가 딸들 사이에서 꼭 조여져 있다가 자기 즐거움을 찾아 틈만 있으면 쫓아 나가거든요. 갑자기 그러니까 애들이 당황하는 거예요.”</p> | <p>엄마의 변화에 대한 아빠의 긍정적인 해석</p> |
| <p>“저는 회사에서 늦게 들어오니까 부딪칠 일이 없어요. 요즘 엄마가 되게 많이 놀러 다니세요. 바람난 것 같아요.(웃음)”</p> | <p>엄마의 변화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긍정적인 해석</p> |
| <p>“이제는 엄마와의 관계에 신경 안 써요. 저희(두 자매가 큰 소리로 웃는다.) 두 사람 각자의 앞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엄마한테 하던 이야기를 이제 언니한테 다 하죠.” “어머니가 지금 놀러만 다니시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의 상징일 뿐이고 어머니는 이제 자신의 삶을 찾아가고 계신 겁니다.”</p> | <p>자매간의 관계의 변화 어머니의 외출에 대한 치료자의 재명명</p> |
| <p>“지금은 애 엄마가 그냥 ‘놀자주의’로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당황되는 것 없어요. 집안이 편안해요. 요즘엔 애 엄마가 청소를 전혀 안 해요. 한 2주 가만히 놔둬봤더니 완전히 개판이에요. 제가 어제 청소기 밀고 밥해 놓고 그랬어요.(웃음) 그런데, 저는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편해요. 밤 11시에 들어와도 밥도 안 하니까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배고픈 사람이 밥해야죠.”</p> | <p>엄마의 변화에 편안해지고 적응하는 아빠</p> |
| <p>“그것도 웃기죠. 정도껏 놀아야죠. 어떻게 밥을 아빠가 해요? 최소한 집에서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엄마는 맨날 밖에서 맛있는 거 먹고, 요즘에 카드 날아오는 거 보면 다 먹고 웃 사는 것 같아요. 제가 꼬치꼬치 물어보면 죄책감을 느끼는지 말을 회피해요. 니가 알아서 뭐하냐고 하시면서...”</p> | <p>엄마의 변화에 대한 불만</p> |
| <p>“그러니까 이 사람은 얻어먹고는 못살아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한 번 쏘는 거야. 제가 보면 다 알아요. 이 사람이 남자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시간이 많이 나니까 밖으로 쫓아다니는 거야.”</p> | <p>아빠의 엄마에 대한 신뢰와 긍정적인 해석</p> |

| 상담내용 | 코딩 |
|--|---|
| <p>“애 엄마가 애들 가르치러 갔다가 한 번은 새벽 4시에 들어 왔고, 한번은 새벽 5시에 들어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놔뒀어요. 그랬더니 하루는 들어와서 하는 소리가 잘못했대요. 고스톱을 쳤대요. 첫 번에 가서 깨지고 또 간 거예요. 그러면서 억울해 죽겠다고....(웃음) 교통사고 났다며 나갔다 들어 오길래 ‘오늘은 났냐?’ 그랬어요.(웃음) 그랬더니 진짜 사고 난 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가보다 했죠. 지금 뭐 탈선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p> <p>“대학 다닐 때의 엄마가 좋아요. 전 항상 엄마한테 이야기 했어요. 학교에서 생기는 모든 일도 그렇고 다 엄마하고 상의하는 것이 가장 편했어요. 지금은 언니가 더 편할지 몰라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엄마가 더 편해요. 지금 엄마가 변하니까 불안하기 보다는 서운한 거죠.”</p> <p>“그런데 엄마가 너한테 무관심한 게 아니야! 저한테 둘째 아이가 엄마가 이상하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웃음) 지난 번, 둘째아이가 여기 다녀간 후에, 애가 한 번 늦게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애 엄마는 또 전화하고 욕하고 난리가 났죠. 11시 넘어서 애가 들어 왔길래 방에 들어오라고 해서 때리는 척을 했죠. 저번에 그러셨잖아요? 애 엄마 편들어 주는 척 하고 선수치라고 그랬더니, 애 엄마가 문을 열고 왜 때리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모두 큰 소리로 웃음)”</p> <p>“전에는 아빠가 집에 오시면 TV만 보시고 말을 하셔도 짧게 하셨는데, 요즘에는 같이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부드러워 지셨어요. 요즘에는 반대로 엄마가 늦게 들어오시면 그러니까 눈치를 좀 보시는 것 같아요.”</p> <p>“예전에는 내가 밥해 놓고 찌개 끓여 놔도 맛도 안 봤어요. 그런데 요즘에 ‘오, 맛있네.’ 그래요.(웃음) 그 전에 비해서 애 엄마가 많이 부드러워졌죠. 우선 잔소리 안 하니까 살만해요. 오히려 요즘엔 자기가 늦게 들어오니까 미안해하죠.”</p> <p>“엄마가 저 보고도 찌개를 막 먹어보라고 그래요. 엄마가 이상해 졌어요.” (웃음)</p> <p>이번 상담에서 아빠와 딸들의 변화와 부부관계의 변화 그리고 딸들과 엄마와의 변화 또한 볼 수 있다. 그러나 엄마의 변화하는 과정에서 둘째 딸이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엄마의 변화에 둘째 딸의 저항이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둘째 딸의 미분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p> | <p>부부관계와 긍정적인 의사소통</p> <p>엄마의 변화에 대한 서운함과 미분화된 동생</p> <p>엄마 편을 들어 주는 아빠와 아빠의 변화</p> <p>자녀와 대화가 많아지고 부드러워진 아빠</p> <p>편안해진 부부관계와 사라진 잔소리</p> <p>급변하는 엄마</p> |

제 13회 상담(엄마, 9월 3일)

| 상담내용 | 코딩 |
|--|--------------------------------|
| <p>“지금까지 나는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고방식으로 살았는데....어쨌든 나는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기가 힘든가 봐요. 내가 원래 좀 흐트러지게 살았다면 그렇지 않았는데, 목적을 가족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힘들어요. 지금은 우리 딸들 생각하기도 싫고 진짜 보기도 싫어요.(울음) 이제는 애들 챙겨주는 것도 귀찮아요. 애들하고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어디에 있다는 것만 이야기 해주면 더 이상 신경 안 써요.”(엄마가 변화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p> | <p>딸들에 대한 배신감과 딸들로부터 거리를 둬</p> |

| 상담내용 | 코딩 |
|---|---------------------------------------|
| <p>“이젠 ‘여태까지 한번도 못 놀았으니까 좀 나가 놀아볼까?’ 이런 생각만 들어요. 놀아봤자 될 하겠어요. 별로 재미도 없고, 술 먹고 난리 치고. 그렇다고 후련하지도 않아요. 애들한테 창피하지.”</p> | <p>엄마의 변화와 자녀들에 대한 수치심을 느낌</p> |
| <p>“저는 남자친구는 없고, 나이트 가서 한 번 놀았어요. 집에 있으면 답답해 미치겠어요. 어제 집에 있는데 답답해서 꺾꺾꺾 꺾꺾더라고요.”</p> | <p>집 안에서 답답해하는 엄마</p> |
| <p>“에 아빠가 내 말을 안 듣고 살았기 때문에 이젠 ‘일찍 들어와!’ ‘술 그만 먹어!’ 그런 얘기도 하기 싫어요. 이젠 저도 에 아빠를 그냥 놔두고 싶어요. 그래봐야 소용없으니까. 사람이 50년 동안 살아온 방식을 바꾼다고요? 내가 변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조금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다면 그냥 각자 알아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운다.) 내가 지금 우리 막내한테 미안해요. 개는 내가 보기에 지능이 좀 모자라는 애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지 대학도 가게 해주시고... 나는 지금 둘째 아이에게 만족해요. 개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서 예뻐요. 막내에게 언제나 ‘넌, 나의 Best one이야’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내가 늦게 들어오면 막내가 더 난리야, ‘엄마, 바람났지?’ 막 이려고....(큰소리로 웃음)”</p> | <p>남편에 대한 강요를 포기한 엄마와 둘째 딸에 대한 감사</p> |
| <p>“예전에는 제가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내조도 필요하고 외조도 필요한데 에 아빠는 내가 돈 버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걱려를 해주지 않았어요.”</p> | <p>걱려해 주지 않았던 남편</p> |
| <p>“제가 태어나서 솔직하게 다 이야기해본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p> | <p>상담의 새로운 경험</p> |
| <p>“큰 애가 요즘 자기 용돈 30만원 제하고, 40만원 정도 나한테 갖다 줘요.”</p> | <p>변화된 큰딸</p> |
| <p>“다음주부터 문화센터에서 라틴댄스 배우려고 해요. 저는 얼마 전에 나이트를 갔는데, 집에 가서 애들한테 어디 가서 어떻게 놀았다고 다 얘기했어요.”</p> | <p>엄마의 자기 삶 찾기와 솔직한 대화</p> |

제 14회 상담(클라이언트, 2002년 2월 1일)

| 상담내용 | 코딩 |
|---|---------------------------|
| <p>“엄마가 맨날 놀러 다니세요.(웃음) 거의 매일 늦게 들어오시고, 늦게 들어오실 때는 새벽 2-3시에 들어오세요. 술은 안하시고 밖에서 자고 올 때도 있어요. 친구들이랑 맥반석 가고, 주말에는 놀러 다니시느라 거의 집에 안 계세요. 엄마가 전화해서 늦게 들어오신다고 하면 아빤 엄마한테 그냥 다음날 아침에 들어오라고 해요. 아빠가 엄마랑 같이 있으면 피곤해 하시니까 서로 부딪히는 게 짜증나시니까 서로 피하세요. 요즘에 엄마가 놀러 다니느라고 바쁘니까 저랑 일단 볼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엄마가 저를 그렇게 확 쥐려고 하지 않아요. 옛날에 뭐든지 자기한테 일일이 보고하고 그래야 했는데, 요즘에는 심하게 안 그러세요.”</p> | <p>눈기에 바뀐 엄마와 편안해진 가족</p> |

| 상담내용 | 코딩 |
|---|---|
| <p>“옛날에 교수님하고 상담할 때는 좋아지더니 다시 원위치예요. 그런데 한 가지 다행인 건 엄마가 맨날 놀러 다니니깐 부딪힐 일이 없어서 좋아요. 동생도 전에는 엄마의 변화를 못 받아들였는데, 요새는 그다지 싫어하지 않아요. 예전엔 엄마가 나가면 자기 혼자 있으니까 싫어했던 것 같은데,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같이 있으니까 이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엄마의 잔소리 듣기 싫다고 이젠 오히려 엄마랑 떨어져 있고 싶대요. 그리고 동생이 엄마가 상담할 때만 괜찮고 옛날이랑 똑같다고 교수님께 전해달래요. 그리고 동생과의 관계가 되게 좋아졌어요. 예전에 제가 동생에 대해서 피해의식도 있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p> | <p>변화하는 엄마에 대한 동생의 적응과 자매 관계의 향상</p> |
| <p>“아빠와의 관계도 그전에 비하여 괜찮아요. 저번에 한 3주 동안 아빠랑 등산 다니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원래 아빠가 말이 많지 않은데, 제가 계속 종알거리니까 아빠가 좀 놀랐었다고 나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때 이후로 아빠가 말을 잘 들어주세요.”</p> | <p>부녀지간의 친밀한 관계와 수다스러운 클라이언트</p> |
| <p>“전 엄마한테 부탁할게 있으면 동생을 통해서 하거든요, 그리고 동생은 아빠한테 할 부탁을 저를 통해서 해요.”</p> | <p>클라이언트와 아빠 그리고 엄마와 동생의 연합관계</p> |
| <p>“이제는 카드를 사용하지 않아요. 아니 못써요. 옛날에는 회사에서도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집에 와서 엄마도 난리를 치고, 제가 회사 들어가자마자 엄마가 돈 관리한다고 가져오라고 하고, 시집가는 자금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죠. 그걸 물건 사면서 풀었어요. 사실 엄마가 가져오라고 한 돈 빼고 나면 용돈이 모자랐거든요. 그게 단기간에 그렇게 쓴 게 아니고요. 거의 1년에 걸쳐서 쌓인 거예요.”</p> | <p>신용카드 남용에 대한 요인</p> |
| <p>“요즘은 엄마가 제가 일 안한다고 잔소리해요. 취직문제로 심각해지면 엄마랑 되게 많이 싸워요. 그럼 아빠는 어떻게 엄마랑 얘기하면서 참냐고 굉장히 신기해해요. 아빠도 예전엔 맨날 참으셨거든요. 제가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나가 살고 싶어요. 지난번에 동생도 아빠한테 엄마랑 떨어져 살고 싶다고 했어요. 아빠도 엄마에 대해서 지겨우실 거예요.”</p> | <p>엄마와 떨어져 살고 싶어하는 아빠와 딸들</p> |
| <p>“엄마가 자기 필요한 거 못쓰고 우리들 필요한 거 해줬다는 것을 말 안 해도 고마운 거 다 아는데, 엄마가 너무 생색을 내니까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없어져요. 아빠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한 번 잘해보려고 했는데 꼭 저런다.’구요”</p> | <p>생색내기 좋아하는 엄마</p> |
| <p>“옛날엔 나가면 일단 딱하고 집에 오셨는데, 요즘엔 맨날 놀러 다니세요. 우리 때문에 한 번도 돈을 못 쓰고 살았으니까 쓰고 다녀야 한다고 하면서 오늘은 라식 수술을 하셨나 봐요. 일단 부딪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좋아요. 엄마가 하도 잔소리를 하니깐 제가 엄마 보는 게 꺼려져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끝도 없이 잔소리를 했는데 요즘엔 그래도 잔소리가 좀 짧아졌어요.”</p> | <p>자신에게 투자하면서 열심히 놀며 잔소리가 적어진 엄마</p> |
| <p>“저는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서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취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빠랑 동생만 알아요.(웃음) 엄마한테 말하면 시끄러워 질 게 뻔하니까요. 다 해 놓고 말하려고요.”</p> | <p>클라이언트의 줄어든 스트레스와 아빠와 동생과의 친밀한 관계유지</p> |

제 15회 전화상담(엄마, 2004년 6월 1일)

엄마와의 건화상담을 통하여 엄마는 그동안 딸과의 관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하면서 딸이 3백만원 정도의 빚을 지게 되었는데, 아빠가 술을 마시고 와서 두 딸에게 폭행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되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때 클라이언트가 집에서 내쫓기는 상황이었고, 아빠는 취중에 의자를 집어 던져서 둘째 딸이 이빨이 부러지는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이 때에 엄마가 딸의 입장을 수용하여 한번 용서해 주었으며, 딸은 엄마가 자신을 믿어 주는 것에 감명을 받아 또 다른 모습의 딸로 변하였다고 한다. 지금은 남편이 취직이 되었고, 딸들과도 너무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는 가정에서 걱정거리가 없다고 자랑하였으며, 모래에 남편의 친구들 부부와 유럽여행을 가는데 지금은 준비하느라 바쁘다고 한다.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치료자를 한번 만나러 오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다.

제 16회 상담(클라이언트, 2004년 7월 13일)

| 상담내용 | 코딩 |
|---|----------------------------------|
| “제가 쇼팽몰을 하다가 3백만원정도 빚을 졌는데, 아빠가 열 받아서 만취가 되어 집에 오셔서 살림을 막 부시다가 동생 이마에 나무 의자에 연결하는 못 같은 게 박혀서 꿰매고, 저도 여기 맞아서 흉터가 생겼고 이빨도 약간 흔들려요. 본래 딸한테 그렇게 심하게 손 안대셨는데 그때는 되게 심하셨어요. 아빠가 너무 술을 드셔서 엄마가 못 말리게 싫겠다 싶어서 저희가 그때 쫓겨났거든요. 그리고나서 엄마가 아빠 몰래 저희들을 들어오라고 했어요. 저희 아빠는 평소엔 따뜻하신데 화가 나면 냉정하시거든요.” | 3백만원의 빚과 아빠의 폭행 그리고 엄마의 수용 |
| “엄마가 아빠가 걱정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좀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너를 믿을 테니까 니가 알아서 잘 하라’ 고 그러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믿어 줄테니까 잘해.’ 라고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굉장히 크게 와 닿았어요. 그 전에는 엄마가 그런 말을 해 본 적이 한번도 없거든요. 저희 엄마는 맨날 혼내기만 하는 사람이었지 나한테 와서 따뜻하게 하거나, 너를 믿는다는 얘기 한마디 하지 않으셨어요. 동생한테 하면 했지. 그래가지고 그게 저는 제가 그때부터 많이 변하게 된 시기인 것 같아요.” | 클라이언트를 믿어 주겠다는 엄마의 말에 감명을 받고 변화됨 |
| “그 때부터 저는 회사에 원서와 이력서를 넣고, 주일마다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에는 교회를 그냥 나갔는데, 지금은 주일마다 꼬박꼬박 나가는데 이상하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 때(1년 4개월 전) 실업률이 엄청나게 높았는데 제가 이력서를 넣은 곳이 모두 합격된 거예요.” | 교회 출석과 취직 |

| 상담내용 | 코딩 |
|---|--|
| <p>“그래서 회사에 들어오면서 엄마가 집에 계실 때 엄마랑 친해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저는 그 전에는 집에 들어오면 제 방으로 들어와서 자요. 엄마랑 얼굴 볼일이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동생을 유심히 보니까 맨날 엄마 옆에 붙어 있어요. 엄마가 모라 그러던 말던 자기는 ‘하하호호’ 맨날 좋아요. 근데 이제 일단 엄마랑 친해지려면 대화를 해야 하고, 그리고 지금은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떳떳하니까 다그칠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엄마가 작년까지만 해도 나쁜 감정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세요.”</p> | <p>취직 이후의 엄마와 친해 지려는 클라 이언트의 노 력과 엄청난 게 변화하고 있는 엄마의 의사소통 방 식</p> |
| <p>“제가 집에 들어가면요 엄마가 침대에 누워계세요. 그럼 엄마랑 계속 얘기해요. 오늘 무슨 일 있었고, 또 엄마가 처음엔 어색하세요. 근데 이제는 처음에 엄마한테 가면 인사하고 일단 저는 아빠는 체쳐뒀어요. 왜냐하면 아빠는 제가 구지 안 해도 아빠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맨날 가서 엄마랑 얘기하고, 저는 원래 TV 잘 안 보는데 엄마랑 가서 보고, 거의 엄마랑 접촉을 많이 하고, 주말에는 거의 집에 있고, 매주 일요일은 청소했거든요. 한번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이야기를 평평 울면서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늦게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터치를 안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시더니, 이번에 제가 승진을 했어요. 근데 엄마가 이제 나를 좀 놓아주셨어요. 이제는 제가 부모님이랑 영화와 쇼핑몰도 가고 그래요. 제가 의도적으로 그런 자리를 마련했거든요. 물론 엄마랑 아빠랑 그런 자리에서 싸우신 적도 있어요. 그런데 두 분이 점점 좋아지셨어요. 엄마가 다른 아줌마들 만나시면서 예전보다 사고가 많이 넓어지신 것 같아요. 엄마 친구분이 그러셨나 봐요, ‘니가 딸을 그렇게 구박하지 않았더라면 갠 더 잘 될 애였어.’ 그랬더니 엄마가 나한테 얘기하시면서 내가 너를 너무 그랬나보다, 내가 안 그랬으면 넌 더 잘 됐을텐데...”, “엄마가 아줌마들과 어울려 다니시면서 예전에 돈이 아까워서 못하신 것을 이제는 하세요. 얼마 전에 아빠친구들 부인들과 엄마친구들 열 몇 명이서 유럽여행을 가셨어요.”</p> | <p>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엄 마 와 유럽여행</p> |
| <p>“어느날 제가 자고 있는데, 그날 아빠가 술을 조금 드시고 오셨어요. 그런데 엄마가 화장실에서 아빠한테 ‘우리 딸과 우리 남편 같은 가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보, 내가 이제 잘해 줄게!’ 그러셨어요. 지금은 엄마는 헬스 다니시고 있고, 포용력이 더 넓어지신 것 같아요. 아빠도 회사 다니시고 심하게 스트레스는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운동하시고 헬스하시면서 아빠도 몸이 좋아지셨어요. 이제는 저희 가정 안정을 찾는 것 같아요.”</p> | <p>부부 관계의 변화와 행복 한 가정</p> |
| <p>“엄마가 많이 밝아지셨어요. 엄마가 이제는 동생이랑 내가 얘기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그래요. 예전에는 엄마가 가족끼리 다니려고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래요. 엄마가 없을 때는 아빠보고 영화 보러 가자고 그래요. 지금은 마음이 편해서 집에 있어도 마음이 안정되고, 집에 아무도 없는 것 보다 엄마가 있는 게 좋고, ‘엄마가 짐질 방 갈까?’ 그러면 친구랑 가는 것 보다 엄마랑 가는 게 더 좋아요. 지금은 가족만큼 소중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 엄마가 저한테 편하게 대해 주시니까요.”</p> | <p>엄마와 친구 가 된 클라이 언트</p> |

| 상담내용 | 코딩 |
|---|--|
| <p>제가 친구랑 약속해도 엄마가 짬질방 가자고 하면 약속 취소하고 엄마랑 가요. 엄마랑 가는 게 더 좋아요. 친구랑은 또 갈 수 있지만, 엄마랑 가는 건 힘드니까요. 엄마가 워낙 바쁘시니까요.”</p> | |
| <p>“작년에는 아빠가 술 드시고 와서 나한테 엄마가 싫다고 하셨는데, 왜냐하면 아빠는 자기가 일하게 되면 엄마가 잘해줄 줄 알았는데 엄마가 똑같으니까 실망했대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얘기 안하세요. 엄마가 생글생글 웃고, 그러시니까 TV 보실 때도 가족이랑 같이 봐요. 그 전에는 아빠의 이가 당뇨 때문에 안 좋으셔서 국 없이는 밥을 잘못 드셨는데, 이제는 엄마가 그런 거 잘 챙겨드려요. 그리고 엄마가 아빠 웃도 챙겨서 사주시고 그러니까 아빠가 마음에 위안도 되셨나 봐요. 그리고 엄마랑 아빠랑 외식하러 가시기도 하세요.”</p> | <p>아빠를 챙겨주는 엄마와 부부 관계의 변화</p> |
| <p>“동생하고도 친하게 잘 지내요. 동생은 엄마랑도 잘 지내요.”</p> | <p>친밀한 자매 관계와 엄마? 동생관계</p> |
| <p>“지난번에 처음으로 엄마가 외할머니와 엄마 형제들끼리만 산에 다녀오셨는데, 엄마가 “그래서 회사에 들어오면서 엄마가 집에 계실 때 엄마랑 친해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저는 그 전에는 집에 들어오면 제 방으로 들어와서 자요. 엄마랑 얼굴 붙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동생을 유심히 보니까 맨날 엄마 옆에 붙어 있어요. 엄마가 모라 그러던 말던 자기는 ‘하하호호’ 맨날 좋아요. 근데 이제 일단 엄마랑 친해지려면 대화를 해야 하고, 그리고 지금은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몇몇하니깐 다그칠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엄마가 작년까지만 해도 나쁜 감정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세요.”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신경질도 안 내고, 희생을 하셨나 봐요. 그때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셨대요. 할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시는 건 처음 본다고 하시면서 엄마가 굉장히 뿌듯하셨나 봐요.”</p> | <p>엄마와 외가 식구들만의 여행과 확대된 가족관계</p> |
| <p>“엄마는 생일 때 선물 안 주면 서운해 하세요. 미리 말해요. 너 엄마 생일선물 샀나?”</p> | <p>엄마의 솔직하고 분명한 의사소통</p> |
| <p>“저는 지금 운동 시작한지 3-4개월이 됐는데 자주는 못해도 아빠랑 시간이 맞으면 아빠랑 같이 헬스를 가요. 낮에는 엄마랑 동생이 함께 헬스를 가고요. 동생이 학교 다닐 때는 세 사람이 함께 운동하러 가고요. 그런데 그게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지금은 동생피부가 되게 좋아졌어요. 그전에는 스트레스가 심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혼자 몸짱 되겠다고 헬스장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p> | <p>융통성 있는 가족관계와 건강해진 동생</p> |
| <p>“그런데 진짜 계기가 없었다면 이렇게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엄마가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 생각도 못했을 것 같고, 아빠나 동생이나 나나 시야가 좁게 생각했지, 교수님 만나면서 정말 이렇게 다들 생각이 넓어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엄마도 그렇고요.”</p> | <p>가족치료의 효과성 인정</p> |
| <p>“저는 어릴 때부터 단절된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항상 갈구했던 가족상은 단란하고 화목한 가정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배우자의 이상형이 첫째가 가정의 화목한 아들이거든요. 그 변화에 대해서 제가 처음엔 엄마랑 아빠랑 되게 힘들었어요. 제가 시간을 내서 노력하면 한수부님과 노력해 엄마가 얻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니깐 엄마도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내게 얘기하고 그러면, 엄마도 잘 들어주시고 그래요. 특히, 엄마가 저에게 ‘내가 너를 믿었다. 너가 잘하리라 믿는다.’ 라는 말이 저에게는 엄청났던 것 같은데, 엄마는 그런 말 한 것이 생각에 안 난대요. ‘내가 그랬니?’ 그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엄마한테 막 가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엄마가 저에게 자꾸 퍼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때 그런 거예요. ‘이래서 부모님과 친해져야겠구나!’ 라고(웃음)”</p> | <p>클라이언트의 변화에 대한 의의의 상 호작용과 긍정적인 의사소통의 효과성</p> |
| <p>“작년에 빚진 3백만원원은 모두 끝났어요. 그리고 요새는 카드 전혀 안 쓰면서 살아요.”</p> | <p>카드빚 상환과 행복한 삶 시작</p> |

2. 신용카드 남용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에 관한 축코딩과 선택코딩

1) 축코딩

축코딩에서는 앞의 개방코딩을 중심으로 상담 전에 클라이언트의 신용카드 남용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과 관련된 범주로 분류하였다, 다음에 연구자는 상담 후에 클라이언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게 된 요인들과 관련된 범주로 분류하였다. 여기서는 가족성원들에 따른 분류를 즉, 엄마, 아빠, 클라이언트, 그리고 여동생 순으로 분류하였다.

■ 엄마

(1) 심리적 요인

① 카드 사용 전

강박증, 불우했던 어린시절, 친정부모의 역기능적인 부부관계, 아버지의 폭행, 불안정한 성격,

② 카드 사용 후

좌절감, 변화로 인한 어려움, 자녀양육 방식에 대한 후회, 딸의 카드 사용 재발에 대한 두려움, 자녀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소진(burnout), 딸에 대한 분노, 자신의 삶에 대한 비애감, 딸에 대한 양가감정, 집 안에서의 외로움, 잘못된 가족관계의 인식으로 인한 혼란스러움

(2) 자녀양육 방식

신체적 학대와 비난, 다른 집 자녀들과 비교, 자녀 간 차별적인 양육 방식, 귀가 시간에 대한 엄격한 규칙, 강압적인 방식, 계속되는 폭행

(3) 집안에서의 역할

어렸을 때 장녀로서의 과도한 역할, 어머니로서의 과도한 역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지나친 역할

(4) 의사소통 방식

무시하는 말투, 저주하는 말투, 반복되는 잔소리, 이중속박 메시지 사용, 솔직하지 않은 의사소통, 명령적이고 직선적인 말투,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5) 부부관계

남편의 당뇨로 인한 잔소리와 부부싸움, 가정을 등한시 한 남편에 대한 비난과 원망, 남편의 잦은 음주와 주벽으로 인한 부부싸움

■ 아빠

(1) 부부관계

부인의 잔소리로 인한 스트레스, 정반대의 부부성격, 시댁식구와의 사건으로 부부관계가 악화됨, 여행 다니는 방법에서의 차이, 부인의 미분화와 지나친 간섭

(2) 자녀관계

인자하고 자상한 아빠, 말없는 아빠

■ 클라이언트

(1) 심리적 요인

엄마로부터 받는 스트레스와 두려움, 엄격한 귀가시간에 대한 불안, 무섭고 괴팍스러운 엄마에 대한 두려움, 불안으로 인한 심리·신체적 증상이 나타남

(2) 엄마와의 관계

엄마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의 반복, 클라이언트에 대한 엄마의 인내

(3) 아빠와의 관계

자상했지만 접근하기 어려웠던 관계, 아빠와 대화가 부족

(4) 동생과의 관계

동생에 대한 부모의 편애, 동생에게 짜증이 많음, 동생에 대한 거부, 잦은 싸움, 소원한 자매관계,

■ 여동생

(1) 건강적인 요인

어려서부터 병약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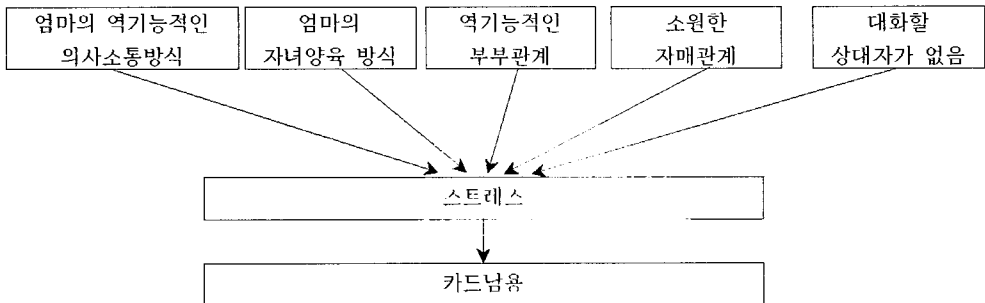
(2) 언니와의 관계

소원한 관계, 자주 싸움

(3) 엄마와의 관계

문제 있는 엄마, 의사소통이 안 됨, 엄마의 집착과 난폭성, 엄마의 학대와 잔소리, 정신병자 같은 엄마, 엄마와 친밀함

2) 선택코딩



<그림 1> 신용카드 남용에 대한 요인들

3. 상담 후 신용카드 남용을 하지 않게 된 요인들

1) 축코딩

■ 엄마

(1) 심리적 요인

삶에 대한 인식의 변화, 클라이언트의 심성에 대한 인정, 상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변화하는데 시간이 필요함, 자아분화 시도, 감정조절의 필요성 인식, 삶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 상담으로 위로 받음, 상담의 효과, 상담에 감사, 상담의 새로운 경험, 자신의 삶 찾기, 자녀들에 대한 배신감과 자녀들과 거리감을 뚫, 집 안에서 답답해 함, 자신에 대한 투자, 열심히 놀면서 잔소리가 적어짐

(2) 의사소통 방식

남을 상처 입히는 자신의 말투를 깨달음과 말조심, 잔소리가 줄어들, 간섭이 줄어들, 클라이언트를 밀어주겠다는 말을 함, 엄마의 솔직하고 분명한 의사소통

(3) 자녀관계

클라이언트에 대한 신뢰감과 희망, 클라이언트의 스트레스에 대한 인정, 클라이언트에 대한 안쓰러움과 사랑, 차별적인 양육방식에 대한 해명, 동생보다 클라이언트에게 더 신경 씬, 자신의 변화와 수치심, 클라이언트에게 엄마의 교육방식에 대한 사과, 클라이언트와 변화된 관계가 지속됨, 둘째 딸에 대한 감사, 변화된 큰 딸, 솔직한 대화방식, 놀기에 바빠진 엄마와 편안해진 자녀들, 생색내기 좋아함

(4) 부부관계

남편이 부인에게 맞춰줌, 남편의 술버릇 변화와 인내심, 편안해진 부부관계와 사라진 부인의 잔소리, 남편에 대한 강요포기, 격려해 주지 않았던 남편, 부부가 함께 교회출석,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음주, 부부만 함께 하는 외식과 여행, 남편을 챙김, 자녀수용과 자녀 편을 들, 딸의 취직에 기뻐함

(5) 심리·신체적 증상

불면증

(6) 친정식구와의 변화

친정식구들과의 여행과 확대된 가족관계

■ 아빠

(1) 부부관계

부인의 고생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 부인의 시간을 갖도록 권장함, 부인과 함께 교회출석, 부인의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 부인의 변화에 편안해지고 적응되어 감, 부인에 대한 신뢰감

(2) 자녀관계

자녀와 대화가 많아지고 부드러워짐, 자녀와 운동함, 자녀와 TV 및 영화 감상함, 자녀와 원만한 대화를 함

■ 클라이언트

(1) 심리적 상태

스트레스 감소로 인한 카드를 사용하지 않음, 상담의 효과성을 인정, 카드빚 청산과 행복한 삶 시작

(2) 엄마와의 관계

엄마태도의 변화, 빨라진 귀가시간, 엄마에 대한 오해가 풀림, 엄마의 입장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공감과 측은지심, 엄마의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 자신의 변화에 대한 노력과 엄마의 변화의 상호작용과 긍정적인 의사소통, 취직 이후의 엄마와 친해지려는 노력과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는 엄마의 의사소통 방식

(3) 아빠와의 관계

아빠와 친밀한 관계 및 수다스러워짐, 아빠와 함께 교회출석, 아빠와 운동 및 영화 감상

(4) 동생과의 관계

동생과 친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설명, 동생에 대한 미안한 감정, 동생과의 관계 변화, 동생과 친밀한 관계 유지

■ 여동생

(1) 건강한 요인

피부가 많이 좋아지고, 운동으로 건강해짐, 몸짱이 되기 위하여 열심히 운동함

(2) 언니와의 관계

엄마와 거리감을 두면서 언니와의 관계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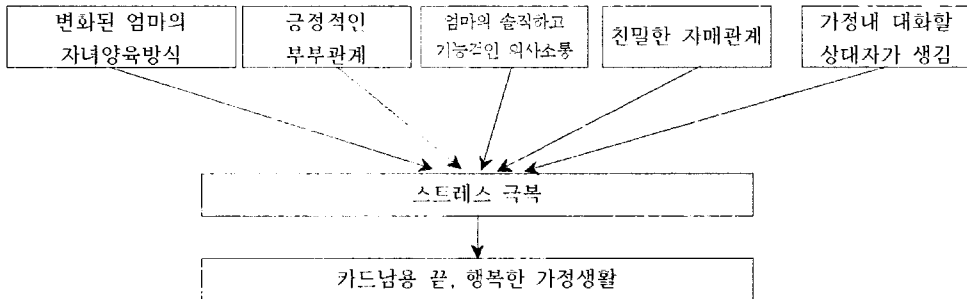
(3) 엄마와의 관계

언니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엄마, 엄마의 신경질이 클라이언트로부터 동생에게 전이, 엄마의 갑작스런 변화에 적응을 못함, 엄마의 변화에 대한 불만, 엄마의 변화에 대한 서운함과 미분화된 둘째 딸, 변화하는 엄마에 대한 동생의 적응

(4) 아빠와의 관계

아빠와 친밀한 관계, 아빠와 외식 및 영화감상

2) 선택코딩



<그림 2> 상담 후 신용카드 남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요인들

V. 결론

치료자이자 연구자는 카드남용을 하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가족문제로 보고 가족치료를 실시하였다. 치료자의 가정은 클라이언트가 어려서부터 엄마로부터 말로써 많은 상처를 받았고, 이러한 엄마의 의사소통 방식은 원가족에서 배워 온 방식이라고 보았는데, 엄마는 원가족에서 장녀로써 과도한 역할기능을 하게 되었다. 한편, 결혼 후 남편의 음주와 폭언과 가사에 무관심으로 인하여 가정 내에서 또한 과도한 역할기능을 하게 되었다. 원만하지 못했던 부부관계로 인하여 자녀들은 엄마와 둘째 딸, 아빠와 클라이언트로 양분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자매관계는 소원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클라이언트는 직장가정 내에서 이중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으면, 이러한 스트레스를 대화로써 풀 수 없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쇼핑 또는 과소비함으로써 그 순간 스트레스를 풀 수 있게 되었다.

치료자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가정 내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의사소통과 자아분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였다. 상담 후, 많은 시간을 거쳐서 엄마가 자신의 삶의 방식에서 인식의 변화가 왔고, 이러한 인식의 변화로 자신의 삶을 찾아 가면서 의사소통 방식에도 변화가 왔다. 이러한 변화가 있기 까지 남편 또한 의식의 변화와 부인을 지지해 주는 의사소통에서 변화가 왔다. 이러한 부부관계의 변화와 엄마와 클라이언트간의 신뢰감 형성, 클라이언트의 엄마와 친근해 지려는 노력과 엄마의 솔직하고 긍정적인 표현, 그리고 자매간의 원활해진 대화와 긍정적인 관계가 클라이언트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궁극적으로 모든 가족의 노

력으로 클라이언트는 가족성원과 대화를 할 수 있었고, 이러한 원활한 대화가 더 이상 카드를 남용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가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상담 전의 카드남용에 영향을 미친 요인과 상담 후 카드남용을 하지 않게 된 요인들을 분석하여 보았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보는데, 아직은 연구자가 근거이론을 상담사례에 적용해 보는 초보단계에 있기 때문에 독자들의 넓은 아량을 기대한다. 또한 질적방법론을 활용한 상담사례 분석들이 앞으로 더욱 많이 나와서 사회복지 임상분야 및 상담분야에서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